

문화

임진란 420년 7주간- 6월 2일 안동서 기념식·학술·문화행사

화해·공존... 역사적 교훈 되새긴다

올해는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420년, 7주갑이 되는 해이다. 조선 선조 25년이던 1592년 4월 13일, 이날 대마도에서 출발한 700여 척의 일본 군선이 부산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미증유의 국란인 임진란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420년이 흐른 지금 동아시아의 역사적 분쟁·갈등과 새로운 공감대 형성, 새로운 미래를 향한 민족적 자존감 회복과 화해·공존 등 역사적 되새김이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가 임진란 발발 420년(7주간)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는 문화학술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시킨 추진위원회 관계자들.

오페라·특별전 등 다양한 행사

8월25일 담양도립대서 학술대회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4월13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오는 6월 2일 안동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학술·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임진란 7주간 기념 문화·학술 대제전-임진전쟁, 420년의 기억과 공존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념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 안동시가 함께 주최하고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가 주관하는 국가적인 행사이다.

2일 기념식에 앞서 하회마을 충효당에서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이종남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장과 전국 임진란 공

신 및 의병장 후손 등 500여명이 참석해 문충공 서예 류성룡 선생에 대한 사제사를 봉행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안동 옹부공원에서 임진란 공신 및 의병행렬을 재연하는 퍼레이드를 펼치고 동시에 낙동강 탈출공원 야외 공연장에서는 기념식 식전행사를 연다. '임진란 7주간 기념 문화·학술대제전 기념식'은 이날 오후 3시 부터 공식 추모제와 기념사, 대화합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창작 오페라 '아! 징비록' 공연이 열린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전국에서는 다양한 문화·학술 사업을 시행한다. 공식 사업으로 임진란 9공신에 대한 사제사와 단제사 봉행, 국제 학술대회, 임진란 공신집 편찬·발간, 임진란 연구총서 편찬·발간, 임진란 관련 교문서 자료집 조사·연

구, 영상물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

1차 학술대회는 '정치와 외교-동아시아 국제전쟁, 임진란'이라는 주제로 6월 29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마련된다. 2차 대회는 '사회와 문화-전쟁의 혼란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8월 25일 담양 전남도립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그밖에 3차(10월12일 부산대학교), 4차 학술대회(12월 안동 국학진흥원)도 준비 중이다.

선양회는 임진공신들의 소장품과 곳곳의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임진란 관련 유물과 유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별기획전시회를 마련한다. 이 전시회는 6월 19일 안동 국학진흥원 전시실과 11월 1일 서울 전쟁박물관 등 두 곳에서 순회로 가진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종남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회장

“뼈아픈 참상 되풀이 않도록 후대에 일깨워줘야”



“올해는 60년마다 되돌아오는 임진년이다. 우리 역사속에서 임진란은 엄청난 고통과 참담함을 남겼다. 이 때문에 60년마다 임금은 직접 제관과 제물을 보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던 장수와 군사들을 위로했으며 임진란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했다” 임진란이 발발한지 420년, 7주갑을 맞은

올해 '임진란 7주간 기념 문화학술 대제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이종남 회장(전 감사원장)은 420년 임진년의 국난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적 교훈이라 강조했다.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손인 이 회장은 “서에 선생과 총무공의 관계로 지난 2007년 ‘서예선생 서세 400주년 기념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로부터 안동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임란 발발 420년, 7주갑을 맞아 흘러져 있는 자료와 역사적 교훈을 담아 후손에게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진란 7주갑을 맞은 올해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회장은 “임진란의 뼈아픈 고통과 오욕의 역사와 참상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 지도자가 민심을 잃고 국목을 먹는 관리들이 무사안일에 빠지면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면 어떤 비극이 닥치는가를 후대들에게 똑똑히 일깨워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번은 없었다... 한국영화 수상 실패



칸=서민정 객원기자

깜짝 수상은 없었다. 현지시간 27일 오후 7시 막을 내린 제 65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은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Amour)'에 돌아갔다. 하네케 감독은 수상 소감을 “두 명의 훌륭한 배우 장-루이 트린트냐와 엠마누엘 리바와 작업할 수 있어 감사했다. 그들의 영화이고, 그들이 영화의 중심이다”고 감사를 표했다. 어렵게도 올해에는 홍상수 감독의 '다른 나라에서'와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이 경쟁작에 선정됐지만 수상작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폐막 하루 전날인 26일 공식 상영된 '돈의 맛'의 경우 극찬과 악평이 공존했다.

트 푸양지는 “임상수가 이번에는 색스신에 유머적 터치를 가미했으며 웅 같은 어머니(윤여정)가 김강우를 달치는 신은 귀엽거나 그로테스크하다”고 평했다.

익스프레스지는 “제한을 두지 않는 덕분에 영화는 너무 길고, 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했다. 다음날 공개된 스크린 인터네셔널 평점에서 '돈의 맛'은 4점 만점에 1.4점으로 경쟁작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비평가 주간에 초청된 신수일 감독의 '서클라인'이 카날플러스 상을 수상하며 한국인 감독으로는 유일하게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아무르'는 갑자기 반신 불구로 움직일 수 없게 된 부인을 간호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27일 제6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아무르'의 주연배우 에마누엘 리바, 장 루이 트레티냐, 미하엘 하네케 감독(왼쪽부터)이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황금종려상 '아무르' 미카엘 하네케 감독 두 번째 수상

그리고 있다. 전직 피아노 교사인 부부가 병세가 악화되며 변화하는 부부의 유대감을 연기했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가 합작했고 총 700만 유로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홍상수 감독의 '다른 나라에서'에 출연한 이자벨 위페르가 노 부부의 외동딸로 출연한다.

'아무르'의 수상은 영화제 내내 점쳐졌다. 총 15명의 프랑스 영화 기자들이 참여하는 '르 필름 프랑세즈' 데일리에서, 8명의 기자가 황금 종려상을 예상했다. 스크린 인터네셔널의 평점에서도 4점 만점에 3.3점을 기록했다.

하네케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은 지난 2009년 '하얀리본' 이후 두 번째다. 2001년엔 '피아니스트'로 심사위원 대상과 남여주

연상, 2005년에는 '히든'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칸 역사상 두 번의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감독은 다르덴 형제, 빌 오거스트, 에밀 쿠스트리차, 이마무라 쇼헤이, 프란시스 포트 코플라 감독 등이 있다.

한편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은 이탈리아 마테오 가로네 감독의 '리얼리티가' 받았다. 크리스티앙 문주 감독의 신작 '비온드 더 힐스'는 각본상과 여우주연상을,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의 '더 헌트'에서 열린한 매드 미켈센이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감독상은 멕시코 감독 카를로스 레이가 다스가, 심사위원상은 영국 감독 켄 로치가 가져갔다.

31일 '별책부록영화제'

다큐 '버스를 타라' 상영

아름다운가게 현책방 광주 옹부점과 광주인권영화제가 함께하는 '별책부록영화관' 5월 행사가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현책방에서 열린다.

이번 달 상영작은 김정근 감독의 다큐멘터리 '버스를 타라'로 17회 인디포럼 초청 신작전, 17회 서울인권영화제 초청 개막작, 12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올해의 다큐멘터리' 수상작이다.

'버스를 타라'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다섯번 운행했던 희망버스를 타고 가며 벌어진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문의 062-514-89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이올린이 함께하는 여름밤 낭만

박신영 독주회, 31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박신영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2011년 공개 오디션을 거쳐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씨는 순수 국내교 연주자.

대전 출신인 박씨는 초등학교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로 선발됐으며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 입학, 예술사와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최고 연주자 과정인 독주자 과정에 재학중이며 광주에도 활동중이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7번'과 라벨의 '차간느'를 연주

한다. 또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도 들려준다.

피아노 반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 전문사 반주과 출신인 손경주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30th Anniversary. Features a knight on a horse, a large '30%' discou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cross Korea.

Advertisement for Bokgodang Hanakbang. Promotes ginseng products with a '6-year ginseng 60,000 won to 150,000 won' offer. Includes an image of ginseng and a map of the store location.